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중국 창업 NEWS

- ▶ 양돈장에 인공지능 사용, 중국 농업은 점점 '날씨우려'부담 줄어(신랑커지, 2019.3.21)
- ▶ 배달 업체 "도청", 배후의 고객 수 경쟁: "최대한 사용자들 붙잡기"(신랑커지, 2019.3.21)
- ▶ 텐센트, 과과천의 인기는 결국 식을 것(신랑커지, 2019.3.21)
- ▶ 재무보고서를 보고도 텐센트를 게임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 (커지르바오, 2019.3.22)

중국 전문가 ISSUE

- ▶ 5G 일보 (2019.3.20-2019.3.26) - KIC 중국 제공
- ▶ AI 주보 (2019.3.18-2019.3.24) - IT 오렌지주보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2019.3.22)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71) (2019.3.27) - 윤형건 교수 제공

주간 중국 VC 투자 요약

- ▶ IT오렌지 주보: 3/18~3/24까지 있었던 81개 국내 투자/합병건(IT오렌지, 2019.3.25)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일본,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중국에서 IT 소개, JETRO 상해에서 강연회(BCN, 2019.3.22)
- ▶ 사랑을 하는데 '연애'수업이 필요한가? 중국 대학에서 개설 봇물(동방신보, 2019.3.23)
- ▶ 5G대응에 EU협조, 중국에 대한 신전략을 논의(산케이신문, 2019.3.23)
- ▶ 이탈리아, 일대일로 참가 중국의 항구로 전략하나? (뉴스위크, 2019.3.26)

KIC중국 NEWS

- ▶ KIC 중국, 칭화대학교 김기환 부교수님과의 인터뷰(2019.3.21)
- ▶ KIC 중국, "Cirrus Program - 제 9기 국제 유학생 인턴 지원 간담회" 방문(2019.3.23)

주간 중국 창업 NEWS

1.양돈장에 인공지능 사용, 중국 농업은 점점 '날씨우려'부담 줄어

(新浪科技, 2019.3.21)

드론이 농사를 짓고 양돈장에 인공지능이 사용..... “정보화 기술이 인터넷 업계, 산업 제조업에서 농업으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최근 전국 춘계농업생산 및 농업기계화 전환을 위한 실무협약에서 “인터넷+농업”을 심층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인터넷+”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존산업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몇몇 일본 매체에서“중국에 다음 테크놀로지 기폭점은 농업인가?” 라고할정도로현재농업분야응용최첨단기술인“농업테크놀로지”가 현재 중국에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민들이 원하는 모든 농업 기술 견비

아시아시피 작물 생산량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유전자품종, 재배환경, 영농 조작 및 차이요소들이 있다.

이토록 절차가 복잡하기에 농업이야말로 정보화와 디지털화가 필요한 마지막 산업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농민들이 경험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곤 했는데, 현재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 농업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농민들이 농지를 관리하는 수단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사진:허베이성(河北省) 푸토투시(泊头市)에서 농업용 드론을 테스트하고 있다_ [출처:신화사(新华社)]

농업생산에서의 무인기 응용성장은 가장 직관적인 표현 중 하나로빅 데이터 기술에 힘입어 정교한 농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지페이테크놀로지유한공사(广州极飞科技有限公司)와 계약한 농가는 이미 120 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생태농업무인기와 식물보호무인기를 주력으로 하는 이 회사는 2019 년 안에 합작농기계 판매점을 약 1200 개에서 1 만 개로 늘려 무인기를 이용하는 농가를 300 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무인기의 응용은 농업 노동력 부족에 대한 도전에 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 북방에서 무인기는 하루 약 800 무의 약을 쓸 수 있는 반면 인공시약은 1 인당 하루 최대 30 무(亩:대략한국평수 6000 평) 정도다. 또한 디지털화된 농장관리 시스템의 구성 부분으로서, 무인기는 농장 데이터 수집과 정밀 시약에도 사용될 수 있다.

중국의 무인기와 유전자 조작기술은 현재 세계 1 위이다. 일부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 농업도 자체 특성에 맞는 모델을 모색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이미 중국의 사회 환경, 하드웨어, 기술 지원이 좋은 기반을 제공하고 있고 농민들이 신기술의 응용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은 전자상거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기기 등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먹이사슬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으며 소비자들의 구매 경험 또한 크게 향상되어 선진국을 추월했다.

유럽의 대형농장과 달리 중국은 소형농가가 많다. 주칭화(朱庆华)는 제 1 재경 기자에게 디지털화 농업이 중국에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면인식 음성감지”를 통한 효율적인 양식

전통 양식업도 인터넷 기업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알리클라우드(阿里云)는 ET 두뇌를 통해 AI 를 구현해 돼지의 생존율과 새끼 출산율을 높이고 있다. ET 농업 두뇌라는 시스템은 영상 이미지 분석, 안면인식, 음성감지, 물류 알고리즘 등 인공지능 기술을 다룬다.

예를 들어 알리클라우드의 암돼지의 임신 여부를 판단하는 “임신 진단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양돈장 내 여러 순찰카메라는 암돼지의 잠자는 모습, 서 있는 모습, 먹이를 먹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암돼지의 배종 여부를 AI 이 분석하는데, 암돼지가 임신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시스템은 이를 알려준다.

새끼돼지가 태어난 뒤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위해 ET 농업 대뇌는 음성인식 기술과 적외선 온도 측정 기술을 통해 돼지 한 마리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 돼지는 모유를 먹고, 잠을 자거나 병을 앓는 등 다양한 상태에서 내는 소리마다 다르고, 기침, 울음소리, 체온 등 데이터분석을 통해 이상이있을시실시간 경보를 보낸다.

비록 안면인식은 이미 스마트폰에 보급돼 있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할 때는 훨씬 어렵다.

허나 징동의(京东) 스마트 양식 기술은 돼지 안면 인식으로 돼지 사료를 정밀 배치한 것 외에 돼지우리 안의 온도, 습도 등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절한다. 지난해 말 징동디지털테크놀로지(京东数字科技) 글로벌 디스커버리 대회(全球探索者大会)에서 중국공정원(中国工程院) 리더파(李德发)원사는 앞으로 돼지를 시작으로 양식과정에서 무인, 무선, 무교란, 무접촉, 진정한 만물상호 연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징동의 계산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 양식 인건비가 30~50% 정도 절감되고 사료 사용량도 8~10%가량 줄어들며 출하기간이 평균 58 일 줄어들 것이다.

중국 농업 장기간 노력필요

최근 몇 년 동안 현대 농업은 점점 더 많은 첨단 기술 응용의 중요한 장면이 되었다. 그 배경에는 시대적 배경이 짙게 깔려 있고 정부, 기업의 순조로운 행보도 있다.

농업은 국민 경제의 기초적인 산업으로서 그 모든 추세가 방법을 모색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의 거시적 수요나 직면하는 도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황웨이동(黄伟东)은 말했다. 식량안보가 요구하는 주요 식량 자급자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 식품안전,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기준, 그리고 생태환경 복원의 절박한 요구인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과학기술이다.

디지털 농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초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는 한편으로 중국경지(耕地)의 다양성은 중국농업이 많은 수요, 많은 투자, 약한 기반, 긴 주기, 느린 보상의 시장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동력 배당금의 삭감, 자동화, 기계화, 스마트가 대세가 되었다.

천타오(陈韬)는 중국 농업의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에 종사하는 자라면 모두 발 벗고 단기간 내에는 수익을 비록 얻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지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배달 업체 “도청”, 배후의 고객 수 경쟁: “최대한 사용자들 붙잡기”

(新浪科技, 2019.3.21)

배달 업체 “도청”, 배후의 고객 수 경쟁

현재, 한 매체에서 배달 업체 플랫폼 메이투완(美团外卖)과 으어러머(饿了么)가 어플을 통해 사용자의 마이크 권한을 획득,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감청하며 먹고 싶다고 말한 음식을 어플에서 추천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으어러머와 메이투완은 이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업계에서는 이 ‘도청’ 사건은 일반 사용자의 정보 유출과 달리, 실제로 사용자를 도청했다면 고객 수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배달 업체 플랫폼은 이미 고객 쟁탈의 중요한 시기로 진입, 정확한 추천과 이미지는 이번 ‘고객 수 대전’의 중요한 임무과제로 떠올랐다.

메이투완, 으어러머는 부인

배달 업체 플랫폼에서 현재 당신이 무엇을 먹고 싶은지 도청하고 있을 수도 있다? 상상력이 뛰어나 보이는 이런 연극이 현재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직접 실험! 메이투완, 으어러머가 당신의 말을 ‘도청’한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IT 스바오(IT时报)의 보도에 따르면, 배달 업체 플랫폼의 사용자가 휴대폰의 어떤 어플도 키지 않았는데 으어러머와 메이투완은 사용자의 대화 중 먹고 싶다고 말한 음식을 ‘도청’하여 어플에서 사용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이 소식은 보도와 함께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베이징상바오(北京商报)의 한 기사는 웨이보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네티즌이 이런 상황을 겪었으며, 배달 업체 플랫폼 외에도 다른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들도 마치 ‘도청’을 한 것처럼 사용자들이 정확히 어떤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려주고 추천해 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상바오 기자도 으어러머 및 메이투완 배달 업체 플랫폼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했고, 두 플랫폼은 ‘도청’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메이투완 측에서는 ‘마이크를 통해 음성 키워드를 녹음, 음식을 주문하는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사용자가 음성 사용권한을 승낙했을 때 비로소 어플 내 음성입력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메이투완은 사용자가 정확히 수요 의사를 표출, 주동적으로 검색을 했을 시 연관 정보를 추천한다고 전했다.

으어러머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제품 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에 관한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으어러머는 시종일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어떠한 필수 정보 수집도 사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된다. 동시에, 으어러머는 스마트 기술의 응용은 사용자에게 점점 더 양질의 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반드시 충분한 기술 조건을 갖춰 실시해야하고 과학기술에 맞는 객관적 규율도 필요하며, 티엔마싱공(天马行空:기세가 당당하여 구속받지 않는다는 비유 말)의 환상이 아닌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적으로는 실현 가능

익명을 요구한 한 기술원은 베이징상바오 기자에게 휴대폰 도청의 기술은 군용 분야와 상용분야에서는 문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상응하는 기술처리로는, 전원이 켜져있는지 꺼져있는지에 관계없이 도청이 가능하다고 하며 "음성도청이외에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문자채팅내용 감시도 실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기술 실현의 원가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전자상회협회 CIO 위원회 웨이보(魏波)비서장은 베이징상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사용자 도청은 기술 실현도가 높지 않아 사실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미 많은 회사의 사용자 도청이 밝혀졌지만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음성인식 기술의 문턱이 매우 낮아, 작은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로 음성인식을 캐치, 사용자가 휴대폰에 앱을 설치할 때 함께 사용자 휴대폰에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음성인식 캐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사용자의 음성을 글자로 입력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불법이며 전송하는 글자 수가 많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특정 키워드를 암호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을 먹을 것이다'를 숫자 '1'로 저장, 사용자가 '나는 ...을 먹을 것이다'를 말하면 숫자 '1'로 인식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이러한 방법은 사용자가 전혀 인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웨이보는 해당 부서에서 이에 관한 법률, 법규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달 업체 플랫폼은 이번 "도청"사건 전에, 이미 정보 보안 위기를 겪었었다. 2018년 4월, 여러 배달 업체 플랫폼의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배달 업체 상점, 배달원 및 고객정보가 QQ(큐큐)에서 불법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고, 배달 업체 플랫폼이 처음으로 정보 보안 위기에 처하자 배달 업체 플랫폼은 탐문수사 하겠다고 맞섰고, 이 사건으로 배달 업체 플랫폼은 사용자 정보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 2018년 6월, 메이투완과 으어러머는 사용자가 주문할 때, '익명 구매'를 기본으로 하며 고객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없애는 한편, 배달원과 고객 간에 가상 전화번호를 활용한다고 선언했다.

어떤 업계에서는 배달 업체의 '도청' 여부를 떠나, 배달 업체의 플랫폼은 사용자 체험을 최적화하기 위해 스마트 추천 기술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현 단계의 배달 업체가 사용자의 유동을 더욱 높여가는 방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체험 최적화의 전제조건은 사용자의 정보 보안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에 있다. 그렇지 않고 사용자의 정보를 훔치다 그 사실이 밝혀지면 플랫폼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과 관계없이 플랫폼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이용자 수를 위하여

익명을 요구한 요식업계의 한 분은 이번 "도청"사건은 저번에 사용자 정보 유출 사건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만약 플랫폼이 진짜로 사용자를 도청한다면, 아마 고객 수라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배달 업체 플랫폼은 보조금으로 고객 수를 늘리는 조방형(粗放型) 성장 단계를 지나 세분화된 운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사용자 체험을 향상시키는 것은 배달 업체 플랫폼이 사용자를 붙들 수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식이다. "사용자 체험 향상은 간단히 말해서 플랫폼이 최대한 사용자를 붙들고 싶으면, 사용자가 플랫폼이 유용하다고 생각되게끔 해야한다. 고화질 이미지를 통한 사용자 추천은 이미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중요하게 배치하는 방향이 되었다."

사실, 메이투완은 이미 사용자의 체험을 향상시키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베이징상보 기자는 최근 메이투완이 어플의 오른쪽 하단에 '스마트 주문' 버튼을 추가해 사용자의 식사 인원, 희망 가격, 입맛에 맞는 수

요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스마트 선별을 진행,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주변 식당과 제품을 추천하는 것을 발견했다.

메이투안 측은 베이징상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용자 체험 향상이라고 전했다. 현재 메이투안 배달 업체는 매장 추천 비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요식업계에서는 '스마트 주문'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상승해 요식업 상점들의 관심을 끌면 서비스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웨이보 역시 배달 업체 플랫폼의 '도청'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고객 수를 얻기 위한 목적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감청 내용은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해 자세한 추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외에 대량의 사용자 데이터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세밀한 사용자 이미지는 상점 발전 전략 결정에 꼭 필요하지만 플랫폼이 자체 채널을 통해 정확한 이용자 이미지를 얻기는 어려움이 있다. 플랫폼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면 향후 요식업 상점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텐센트, 과과친의 인기는 결국 식을 것(新浪科技, 2019.3.21)



과과친(夸夸群: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서로 칭찬하는' 목적을 가진 위챗 채팅방)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유행을 얻었다. 2 월 28 일 시안교통대(西安交通大学) 과과친이 처음으로 웨이보 인기검색어에 올랐으며, 지금까지는 타오바오 및 위챗 미니프로그램에 과과친이 밀집되어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업 모델이 위챗 소셜 네트워크의 형태를 갖추어져 가고 있다.

핀둬둬(拼多多)는 위챗 소셜 네트워크 출시를 최고 기록으로 제일 빨리 갱신했다. 핀둬둬는 새로운 '집단 팔로워'의 방식에 마주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3 월 20 일, 즈후(知乎:지식 공유 사이트)에서는 텐센트측에서도 이 현상의 공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텐센트 시장기획 및 보급부에서 온 찬원(撰文)은, 과과친을 "단지 대중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매우 일시적인 모습으로 오랫동안 형성되기 어렵다."라고 정의했다.

사진:한 과과친의 내용-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다른 사람들은 '몸을 운동시킬 수 있다', '다음 자전거는 더 예쁠 것이다' 등의 칭찬을 하고 있다_ [출처:바이두사진(百度图片)]

과과친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도우반(豆瓣)이라고 있는데, 과과친이 바로 도우반의 칭찬 버전으로 나온 것이다. 도우반 관련 책임자가 기자와 인터뷰 할 때도 도우반은 원래 하나의 중심화 된 사회로, 사용자들을 집중시키는데 관심이 있었다. 칭찬 버전은 2014 년도에 사용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현재 11 만 회원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비록 텐센트 직원의 연설에서 좋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많은 기자들의 중심을 둘러싼 과과친의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되면서, 과과친의 미니 프로그램 또한 속속 등장하고 있다.

텐센트 직원은 오래 형성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2 월 28 일, 과과친의 첫 번째 출시 날, 인기 검색어로 계속 후끈 달아 올리며 모든 사람의 핫한 주제가 되었다. 한 달 사이에, 화둥(华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중국의 모든 명문대학교에서 매우 많은 과과친을 만들었다. 심지어 해외까지도 퍼졌고, 위챗은 매우 높은 검색량을 기록했다.

소식에 따르면, 전국 각각의 명문대학교의 과과친은 칭화대학교에서부터 최초로 시작됐다고들하지만 실제로는 시안교통대가 먼저 시작했고 그날 웨이보의 검색어 순위 에서도 애플의 봄맞이 발표회 순위를 뛰어 넘었다.

시안교통대학교의 과과친은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갑자기 "과과친"이라고 생각해 냈으며, 단체톡방에서는 내용에 관계없이 전송하면 다른 사람은 칭찬을 해야 한다. 이는 마음이 속상할 때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과과친은 초반에 4 명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의 1100 명에 이르렀다.

이후에 과과친은 돈을 지불하는 과과친과 무료 칭찬하는 과과친 2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무료칭찬 과과친은 각 명문 대학교 학생들의 주력이 되어, 그들은 본교에서 신속하게 과과친을 만들었다. 그 중 칭화대학교, 베이징대학교, 푸단대학교, 시안교통대학교 등 유명한 학교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돈을 지불하는 방식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많은 점포와 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 그들 중 일부 점포는 맞춤 서비스의 점포이며, 그전에는 말동무, 대리기사(게임 상에서 대신 해주는 사람), 가상 여자 친구 등의 항목이 있다.

3월 20일 오후에, 즈후(知乎)에서 텐센트의 기관측은 과과친의 조치에 대해서도 응답했다. 계열 시장기획 및 보급부 위원의 공개 대답에서, 과과친은 사실 작년의 두이두이친(氹氹群)과 같으며, 모두 대중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육안으로도 볼 수 있듯이, 과과친 또한 뜨거운 이슈가 결국 식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사교의 새로운 즐거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온라인상에서 시작된 명문대학교가 만든 과과친이 오프라인까지 뻗어 나가면서, 최근에는 칭화대학교, 북경대학교의 토론팀이 인터넷상에서 핫한 편편친(喷喷群: 상대방에게 비아냥거리는 채팅 그룹)과 과과친에 대해 토론을 열어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발효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을 털어놓는 그룹 채팅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미 앞에서 텐센트의 잔원이 말한 것처럼, 과과친의 시초는 도우반으로 2013년, 2014년에 이미 도우반 '칭찬그룹(表扬组)'을 만들었다.

증권일보 기자는 도우반의 칭찬그룹도 아직 활발하게 활동 중이지만 위챗친 안에 있는 과과친에 비해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칭찬그룹' 외에도, 도우반에는 수십만개의 흥미로운 그룹이 있다.

온라인 친구 이 씨는 기자들과 교류할 때, 사실 과과친이 막 시작했을 때는 매우 흥미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룹 채팅 속에 친구들도 많아지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추켜세워주는 것은 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교 및 단골 무리에서는 재촉하여 과과친의 역할을 알아보는 안 된다고 말했다. 되돌아보면 도우반 플랫폼이 사교의 기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과친의 그룹 채팅 기능이 매우 빨리 보급된 것이다. 하지만 영향력은 서로 비슷하다.

비록 텐센트직원이 공식적으로 약해지지만, 기자들은 열성팬들의 초점이 모인 것을 발견했다. 적지 않게 둘러싼 과과친의 영업도 넓혀져가기 시작했으며, 어느 단체들은, 과과친의 미니 프로그램이 발전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위챗에서 심사 단계로, 아마도 곧 온라인에서 마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실, 기자들은 위챗의 미니프로그램에서 이미 과과친의 사교 미니 프로그램이 출시한 것을 발견했다. '과과(夸夸)'라고 두 글자를 입력하면, 수많은 개인이나 기업들이 '과과'의 위챗 미니 프로그램이 온라인에서 시작한 것을 마주할 수 있다.

그 중에 항저우의 '하오하오멘실커지회사(好好面试科技有限公司)'는 과과친대전을 개발했다. 거의 전국의 모든 명문 대학교의 과과친의 인구를 긁어모았다. 임의로 아무 명문 고등학교의 과과친을 클릭하여, 그 학교의 과과친의 QR 코드를 알아냈다.

텐엔차(天眼查)에서 온 정보에 의하면 항저우의 하오하오미엔실커지회사는 2019년 1월 25일에 창립되었으며, 등기자본은 100만 위안으로, 저장성(浙江省) 항저우시(杭州市)에 위치해 있다.

4. 재무보고서를 보고도 텐센트를 게임회사라고 할 수 있을까? (新浪科技, 2019.3.22)

텐센트에게 있어서 2018 년은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주식투자를 보면 텐센트는 2018 년 봄에 상한가를 찍고 10 월 말까지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번 2018 년도 기업실적 발표로, ADR 이 급락하여 최근 텐센트 주가는 또 다시 풍파를 맞이했다.

지난해 텐센트임원들의 내부 회의에서 텐센트는 “꿈이 없다”라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텐센트는 현재 제품력과 창업정신을 잃고 투자회사로 변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게임시장이 얼어붙은 환경에서 텐센트는 2018 년 9 월말 근래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발표, 소비인터넷에 뿌리를 내리고 산업인터넷을 포용하여 업무중심으로 개편한다고 전했다.

최근 발표한 재무보고서 데이터에 의하면 텐센트는 2018 년의 전체 영업수입은 3126.94 억 위안으로 동대비 32% 증가 했다. 비일반회계기준 회사 권익 보유인은 787.19 억 위안을 차지하여 동대비 19% 증가 했다. 예년에 비해 두 지표의 증가율은 큰 둔화를 보이고 있다.



사진: 텐센트 근년 매출과 순이익의 변화 추세_ [출처:신랑커지(新浪科技)]

동시에, 일찍이 게임 산업이 텐센트 총 영업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지만 현재는 금융 과학기술과 클라우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조직 개편 후, 텐센트의 미래 엔진은 변하고 있다.



사진: 텐센트 근년 각 업계의 수익 상황_ [출처:신랑커지(新浪科技)]

게임 영업 수익 하락, 시장 점유율 증가

2017 년 텐센트 온라인 게임 영업수익은 동대비 38%의 증가를 보였지만 2018 년 한해, 텐센트 온라인 게임 영업수익은 1040 억으로 동대비 6% 증가했다.

이 성장은 스마트폰 게임 '왕저룡야오(王者荣耀)'와 'QQ 페이지 모바일(QQ 飞车手游)', 신규 게임인 '기적 MU: 각성(奇迹 MU: 觉醒)'과 'QQ 댄스 모바일(QQ 炫舞手游)'등의 수입이 반영됐으며 개인 콘솔형 게임의 수입은 하락했다.

텐센트는 2018 년 PC 게임 사업 수입은 약 506 억 위안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고, 모바일 게임 사업 수익은 778 억 위안(소셜 네트워크 업무에 속하는 스마트폰 게임 수입 포함)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

4 분기에는 텐센트 온라인 게임 영업 수익은 241.99 억으로 전 분기 대비 16 억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텐센트 모바일 게임 사업 수입의 제 4 분기 수입은 190 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2% 증가하였고 PC 게임 수입은 112 억 위안으로 동기 대비 13% 하락했다. 이를 통해 게임 사업의 하락세를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영업 수입 비율 중 2018 년 온라인 게임 매출 비중은 33%이며 4 분기에는 29%로 낮아졌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금융 과학 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및 영상 제작 등 수입 증가를 반영하는 "기타 분야"의 수입이 4 분기에 242 억 1200 만 위안으로 온라인 게임 수입의 241 억 9900 만 위안을 약간 상회했으며 텐센트 전체 수입 중 29%를 기록했다.



사진: 2017 년 4 분기 텐센트 사업별 매출액 비중(좌), 2018 년 4 분기 텐센트 사업별 매출액 비중(우)

[출처:신랑커지(新浪科技)]

하지만 지난해 12 월부터 게임 상업화 허가증의 승인이 다시 시작되면서 텐센트 관련 매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재무보고서(财报)에 따르면 현재까지 텐센트는 총 8 종(스마트폰 게임 7 종 및 개인용 컴퓨터 게임 1 종 포함)의 게임이 승인됐으며 롤플레잉 게임, 전략성, 킬링타임형 및 기능성 카테고리 등이 포함됐다.

작년 게임 분야가 부진했지만 텐센트는 중국 모바일 게임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했고 각 게임 세분화 시장의 이용자의 참여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위챗의 계속된 확장 QQ 이용자 수 반등

소셜 네트워크 분야 위챗은 안정적으로 보이고 QQ 또한 이용자 수가 반등하고 있다.

2018년 4분기까지 위챗의 월 사용자 수는 10.98억 명으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매일 평균 7.5억 명이 넘는 위챗 사용자들이 Moment(朋友圈)를 읽으며, 미니프로그램 계정 활성화 또한 빠르게 증가하여 하루 평균 사용자 방문량은 동대비 54% 증가했다.

4분기에 위챗은 업데이트를 통해 "비디오 다이내믹"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이 친구들에게 15초 정도의 짧은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매일 수익이 넘는 소셜 비디오 영상이 위챗 플랫폼에 공유 된다고 한다.**

위챗의 안정적인 발전은 텐센트 광고 수입의 증가를 가져왔다. 2018년 4분기 텐센트 소셜 및 기타 광고 수입은 44% 증가된 118.46억으로 집계됐으며 주요 수익은 위챗 Moment(朋友圈), 미니 프로그램 및 QQ 볼거리(看点)의 광고 수입 증가이다.

QQ 볼거리의 기여로 젊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텐센트는 QQ 볼거리는 이미 젊은 사용자층의 정보 교류 서비스로 자리 잡아 이용자들의 참여도가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2분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QQ의 월 이용자는 8.99억 명에서 8.03억 명으로 9600만 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번 재무보고서에서 QQ 이용자 수가 반등, 40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있다.

소셜 네트워크 영역에서 위챗은 QQ 최대의 라이벌이다. 현재 QQ는 거의 위챗을 다시 역전할 수 없다. 하지만 위챗과의 경쟁 중 QQ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 젊은층의 다양한 수요에 집중했다.

재무보고서에 QQ는 서로 다른 수직 영역에서 e-spots, 만화, 생방송 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콘텐츠를 제공, 밀레니엄 세대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또한 QQ는 혁신 AI 보조 기능을 출시, 풍부한 채팅 체험을 제공하여 젊은 사용자를 유지하고 있다.

텐센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QQ는 95호우(95년 이후 출생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오래된 사용자들은 점점 QQ를 떠나는 추세이지만 새로운 이용자들이 속속 유입되고 있다.

금융 과학기술과 클라우드의 급속 성장, 미니 프로그램의 중책

2018년 한해, 텐센트 기타 분야의 수입은 779.69억으로 동기 대비 80% 증가했으며 텐센트 전체 수입의 25%를 차지한다. 주로 금융 과학기술 및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뤄졌다. 4분기를 보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 사업의 영업 수입은 242억 1200만 위안으로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하여 게임사업과 대등하다.

지난해 조직 개편 이후 텐센트가 기업 단위 업무에 힘을 실어주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다. 텐센트는 새로 출범한 클라우드와 스마트 산업 사업군(CSIG)에서 텐센트 클라우드, 인터넷+, 스마트 소매, 교육, 의료, 안전과 LBS 등의 솔루션을 통합해 기업의 디지털화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

텐센트 클라우드, 금융 및 과학기술 분야 등으로 구성된 기타분야는 확실히 재무보고서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항목이다. 하지만 현재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2018년 1분기 동기 대비 111%로 상승한 이후 다음 분기에서는 81%, 69%, 72%로 점차 줄어 들었다. 4분기에서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초기보다는 낮아 텐센트 향후 미래 발전의 잠재적 염려로 남을 수도 있다.

이 밖에도 텐센트에서 별도로 발표한 클라우드 관련 데이터도 주목할 만하다. 2018년 텐센트 클라우드 수입은 91억으로 동기 대비는 100%를 넘었다. 4분기 유료 고객은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었다. 이에

비해 알리 클라우드(阿里云)의 2018 년 매출 규모는 213 억 6000 만 위안으로 텐센트 클라우드보다 여전히 격차가 큰 약 2.3 배 정도이다.

텐센트 금융 과학기술 방면의 일부 데이터도 눈에 띈다. 텐센트의 재무보고서 에서는 모바일페이의 경우 상업거래가 거래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 하면서 2018 년 텐센트 2018 년 4 분기 하루 평균 거래량은 10 억 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2018 년 텐센트의 상업 거래 수입은 동기 대비 2 배가 넘는다. 또한 2018 년 4 분기 텐센트 월 활성화 상점이 80% 증가했다. 미니 프로그램과 "QR 코드 스캔 구매" 등의 기능에 힘입어 텐센트는 식품 및 판매 업계의 지불 보급률을 높이고 있다.

재무보고서 발표에 앞서 'QR 코드 스캔 구매' 서비스가 중국 기업의 iF 디자인상(서비스 디자인 부문) 첫 금상을 수상했다. **미니 프로그램 생태계의 번영은 텐센트에 막대한 에너지를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니 프로그램 광고는 텐센트 소셜 광고 수입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고, 개인형 사용자와 기업 사용자 모두 연결할 수 있다. 텐센트에 따르면, 미니 프로그램은 이제 위챗 사용자 및 기업에 널리 채택되었으며 온라인 사용자와 오프라인 장면을 연결하는 업계 트렌드를 만들었다. 프로그램 일일 사용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이용자의 일일 평균 방문량은 전년대비 54% 증가해, 200 개가 넘는 서비스 분야를 커버하고 있다.

마화텡(马化腾)은 특히 "우리의 미니 프로그램은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 및 기업에 의해 채택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활동적인 미니 프로그램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거물급들이 미니 프로그램 대열에 합류한 상황에서도 텐센트는 미니 프로그램을 '우리만의 독특한 자원'으로 묘사했다.

장소룡(张小龙)은 "미니 프로그램에 대한 각오가 대단하다"고 밝혔다. 산업인터넷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인 텐센트에게 있어서 미니 프로그램은 미래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 틀림없다고 전했다.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5G 일보** (2019.3.20-2019.3.26)

5G 위챗 공식계정은 5G, IoT, IoV(Internet of Vehicles)를 보도하는 신매체플랫폼입니다. 본 자료는 5G 위챗 공식계정에 올라온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의 5G 관련 주요 기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info@kicchina.org로 문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각 장비 업체 5G 시장 점유율!(5G, 2019.3.21)

3월 21일, 한국 연합뉴스는 삼성전자의 주주 총회에 대해 보도했다. 5G 위챗 공식계정(ID: angmobile)에 따르면 주주 총회 중, 마케팅 리서치 전문 회사 IHS Markit에서 발표한 최신 데이터를 보면 현재 전 세계 5G 장비 시장에서 삼성의 점유율을 3%에 불과하며 화웨이(华为)와 에릭슨의 점유율은 각각 28%, 27%에 달한다.

전 세계 5G 장비 시장 점유율의 데이터를 보면

- ① 삼성의 점유율은 3%이다.
- ② 화웨이, 에릭슨이 전 세계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화웨이가 28%, 에릭슨이 27%로 둘의 차이는 크지 않다.
- ③ 화웨이와 에릭슨의 점유율을 합치면 전 세계 5G 장비 시장의 55%를 차지한다.
- ④ 나머지 공급업체 전 세계 5G 장비 시장의 점유율을 합치면 42%이다.
- ⑤ 또 주목해야 할 데이터로는 2019년 2월 말 "MWC19"(2019 세계 이동통신 대회·바르셀로나)가 열리기 전, 화웨이와 삼성은 각각 40000개와 36000개의 5G 기지국을 제조했다고 발표했다. 5G 위챗 공식계정은 이 데이터를 따르면 삼성의 전 세계 5G 기지국 시장의 점유율은 화웨이의 수치와 근접하여 장비 시장의 점유율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가 없다고 판단, IHS Markit 최신 보고 중 "5G 장비"는 "5G 기지국 장비"만을 뜻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고동진 삼성전자 IM 부문장(사장)은 현재 삼성전자는 5G 관련 기술과 관련된 인수 합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삼성은 스페인에 있는 5G 솔루션 개발업체 Zhilabs를 인수했다.

고동진 사장은 "삼성전자는 이미 10년의 시간 동안 5G 네트워크 장비, 5G 단말기 칩, 5G 칩셋에 관한 5G 솔루션을 개발, 현재 5G 장비, 5G 칩셋, 5G 단말기로 이어지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주요 시장이 갤럭시 S10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삼성 스마트폰 업무의 수익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올해 4월 한국 시장에 첫 5G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정식 상용화) 또한 삼성의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도 4월 말 미국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하며 (출고가 1980달러) 첫 5G 폴더블폰은 5월 중순 한국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2.전국 최초! 5G 로 전력 공급 보장!(5G, 2019.3.25)

3 월 24 일 오전 광둥성 (广东省) 교통그룹 (交通集团)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广州)와 동관 (东莞) 을 잇는 중요한 동서방향 통로인 후문이교 (虎门二桥) 프로젝트에 전면적인 시범 전등을 실시하였고, 날씨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조만간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후문이교에서 프로젝트 상의중인 중국인들_ [출처:남방바오매체(南方报业传媒集团南方+客户端)]

후문이교 프로젝트는 <웨강아오(粤港澳:광둥, 홍콩, 마카오) 다완취(大湾区:Greater Bay Area)발전 계획 요강> 발표 이후 처음으로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및 “민생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광둥성이 웨강아오광 지역의 건설을 전면 실시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구도인 “일핵 일대 일구(一核一带一路)”을 가속하여 구축하고 주강(珠江) 동서 (东西) 양안의 융합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성과이다.

이날 후문이교 프로젝트인 18 시, 천키로미터가 넘는 2 개의 대교는 3837 개의 대교면과 경관조명등이 어우러져 오색찬란하게 빛났다.

대교의 조명 시스템은 643 개의 가로등과 3194 개의 경관 조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문이교 프로젝트의 이연병(李彦兵) 부사장 소개에 따르면, 개통 운영기간 동안 도로 조명은 규정된 시간에만 들어오고 되며 경관조명은 명절과 휴가일 또는 특정 시간대에 맞춰 불이 들어온다고 했다.

두개의 현수교에는 총 1540 개의 별빛 램프와 1628 개의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각각 주교의 윤곽을 그려 주고 주탑 및 현수교의 윤곽을 부각시키는데 사용됐다고 이연병 교수는 설명했다. 동시에 두개의 현수교에는 26 개의 장미 램프가 설치되어 있어 주로 빛기둥을 위로 발산하고 연꽃모양의 조명장면을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5G 무인기 스마트 순검 애플리케이션이 대교 전력 공급 보장 작업에서 멋진 모습을 보인 것은 중국 현지 내에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5G 네트워크의 지원 하에 차세대 전력 비상 통신 보장 차량은 전기 보호 작업을 위한 일종의 이동식, 고속, 즉각적인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제공한다.

중국남방전력망공사(南方电网) 광둥성 동관 공전국(广东省东莞供电局)은 전력 비상 통신 보장 차량을 핵심으로 광동 차이나 모바일 양질의 5G 네트워크를 뒷받침하여 보전작업 데이터 실시간 회전, 보전현장 상황실시간 조사, 현장 지휘 실시간 소통 이란 보전 작업의 3 가지 “실시간”을 실현하였다. 이를 통해 응급센터 당직 근무자가 보전 현장 원격 조정, 데이터 조사, 지휘 결정을 실현할 수 있다.



동관 공전국 관계자는 “과거 무인기 순검 인원은 작업 후 기록내용을 카피하여 분석하는데 시간과 힘이 많이 필요했지만 5G 기술을 기반을 둔 차세대 전력 비상통신 보장 차량은 각 전문적인 전기 보전 작업에 일종의 이동식, 고속, 즉각적인 데이터 전송 방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후문이교 무인기 보전 순검 업무는 최소 4 시간 동안 데이터 인공 카피 시간을 줄여 보전 순검 업무의 효율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5G 통신기술로 전기를 공급받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5G 기술의 응급 통신 보장 차량, 기존 보전 작업에 새로운 기술 수단을 부여하고, 이동식 현장 공급 보장 작업 데이터 센터와 지휘센터를 만들어, 스마트화, 디지털화, 가시화 공급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량 전기 사용에 더욱 믿을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한다.

차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유한공사(中移互联网有限公司)를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 사람들은 대교의 조명 중계영상이나 전기보호 데이터를 시청할 수 있다. 정확한 시간대에 버퍼링 없이 선명한 화질과 유창한 시청 체험으로 5G 기술의 전 세대 대비 이동통신 기술의 강점이 느껴진다.

3.전국 최초 “5G 국경 검문소” 개통! (5G, 2019.3.26)



사진: '길림통화국경관리부대'와 '차이나 모바일길림통화지사'가 공동으로 “디지털 국경 검문소(数字边防)”를 건설하는 전략적 협력 협약 서명식이 진행중이다. [출처: 위챗공식계정(angmobile)]

3 월 24 일 오전 길림통화국경관리부대(吉林通化边境管理支队)와 차이나 모바일길림통화지사(中国移动吉林通化分公司)가 공동으로 “디지털 국경 검문소(数字边防)”를 건설하는 전략적 협력 협약 서명식이 개최됐다. 첫 근무 현장에서 VR 안경과 5G 네트워크를 통해 감시화면을 빠르게 되감으면서 전국 최초의 5G 검문소가 길림성에서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최근 들어서 과학기술이 점차 경찰 업무로 이어짐에 따라 “인방(人防, 사람을 이용하는 안전 방법수단 줄임말), 물방(物防, 물건을 이용하는 안전 방법수단의 줄임말), 기방(技防 현대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안전 방법수단)” 등 다원적(多元) 통제 체계가 여러 차례 실전 점검을 받았으며, “전선실방, 합작작전(全线设防、合成作战)”의 근무 반경 최초 관변조율(管边控边, 국경지역 관리 및 규제)로 향상되었다. 길림성은 (吉林省) 전국 5G 인터넷 전송 시범구역 중 하나로, 전 성(省) 최초 5G 기지를 길안시(集安市)에 정식 상륙하였다. 통화 국경관리부대는 기회를 잡아 가장 먼저 차이나 모바일 길림통화지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산하 운봉(云峰) 국경검문소는 산간지역에 있어 근무 범위가 넓고 도로 입구가 많아 통제가 어려운 실제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조사를 거쳐 5G 네트워크 신호를 해당 관할 지역에서 커버하고 전국 최초의 5G 네트워크를 개통하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5G 국경 검문소는 과학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화 합작작전(合成作战) 체계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마스터 플랜은 “디지털 국경검문”의 주도로 5G 단병과 모터화 지휘체계의 통합 운용을 이루게 된다. “연판지휘플랫폼(사건경위 연구 판단 플랫폼), 국경지대 보안시스템, 어선관리시스템, 350 조 클러스터 통신(350兆集群通信), 원격통신 경찰업무 시스템(远程通信警务通系统)” 등 정보화 경찰망을 정비하고, “VR 안경, 일체화 경찰 바디캠, 무인 정찰기, 4K 고화질 적외선야간 CCTV” 등 5G 운용 장비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풀커버, 고화질, 스마트화, 집성화(集成化)가 일체화 된 디지털 국경 검문 시스템을 구

축하여 CCTV 의 사각지대 및 고위험 구역, 짧은 유선 선로, 어려운 민간 순찰, 낮은 효율, 높은 원가, 감시 불완전 등 난제를 철저히 해결, 실시간 모니터링, 빠른 응답, 응급 처치, 국경 반테러 등 여러 분야의 능력제고 등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디지털국경, 스마트 국경, 안전한 국경을 구축하는데 보장한다.

주간 중국 전문가 ISSUE**AI 주보** (2019.3.18-2019.3.24) (IT 오렌지주보(IT 桔子), 2019.3.26)

AI주보는 위챗공식계정 'IT 오렌지주보'에 올라온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주간 동향 보고서 및 AI 관련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본 기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info@kicchina.org로 문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정책**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AI와 실체경제 융합 촉진**

3월 19일,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 7차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실체경제 융합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포함한 8건의 문건이 심의에 통과했다. 이는 올해 전국 "양회(两会)"에서 총리가 처음으로 "스마트+"를 제시한 후, 국가급 인공지능발전의 또 다른 중요 지도문건이다. 회의에서 인공지능과 실체경제 융합 촉진은 신세대 인공지능 발전 장점을 파악하여 시장요구에 방향 맞춰 산업 응용을 목표로 심도 있는 개혁, 혁신을 진행, 제도환경 최적화, 기업혁신에 활력과 생동력을 불어 넣고 다른 분야, 영역의 장점을 결합하여 혁신성과 응용전환의 루트와 방법을 탐색, 데이터 구동, 인간과 기계 협동, 글로벌 융합, 함께 공유하는 스마트 경제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 대기업 동향**이투의료(依图医疗)와 화웨이(华为)의 협력 성과 스마트 의료 클라우드 발표**

3월 21일, 푸조우(福州)에서 열린 2019 화웨이 중국 생태 파트너 대회에서 이투의료와 화웨이가 공동 협력의 성과인 스마트 의료 클라우드를 발표했다. 스마트 의료 클라우드는 "하나의 베이스(底座), 3개의 기술"의 융합으로 그 베이스는 화웨이의 풀 스택 방식의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베이스이다. 또한 3대 기술은 이투의료의 세계에서 인정받은 삼대 AI 기동, 그림식별, 자연어처리와 언어처리로 구성되어 있다.

알리바바(阿里巴巴) 기계학습 플랫폼 PAI 3.0 버전 발표

3월 21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2019 알리바바 클라우드(阿里云) 정상회담에서 알리바바는 기계학습 플랫폼 PAI 3.0 버전을 발표했다. PAI 3.0은 새로운 알로리즘 모델 시장을, 전자상거래, 소셜 네트워크, 광고, 금융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수십 가지 상황의 알맞은 알고리즘 모델, 신 증류식 알고리즘 모듈, 그래프 신경 네트워크, 증강 학습 모듈 등의 플랫폼 도구를 출시했다.

Media Tek(联发科) 스마트 가구 사업 팀 및 시장 발전 전략 발표

3월 20일, Media Tek은 기자회견을 통해 스마트 가구 사업 팀과 시장 발전 전략을 정식 발표했다. Media Tek 스마트 가구 사업 팀은 Media Tek과 MStar(晨星半导体)의 합병 후 스마트 TV 분야의 기술 우위 및 제품을 융합 및 최적화, Media Tek의 영상 기술, AI 및 IoT 분야의 기술 축적 및 연구개발 실력과 결합하여 시장 수요에 대한 전면적인 스마트 가구 솔루션을 제공한다.

알리바바 AI labs 사투리 보호 팀 설립, 1억 위안 투입하여 사투리 보호

3월 20일, Tmall Genie(天猫精灵) 연구개발부서 알리바바 AI labs는 사투리 보호 전문 팀을 설립, 1억 위안을 투입하여 중국어 사투리 보호 및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Tmall Genie도 스촨(四川) 사투리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 사투리 음성인식 최적화 작업을 진행, 전국의 모든 사투리를 커버할 계획이다. 이 외

에도 해당 팀은 관련 정책 설립 기관, 전문가 및 대학과 협력하여 사투리 자원에 대한 보호성 개발을 탐색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 SAS AI 분야 연구개발, 교육을 위해 10억 달러 투자

3월 19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회사 중 하나인 SAS가 향후 3년간 AI 분야에 분석 플랫폼 개발,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 밝혔다. SAS의 AI 업무는 AI를 플랫폼에 추가, 데이터 관리, 고객 분석, 사기, 보안, 위험 관리 등에 사용된다. 해당 회사는 AI와 사물인터넷 데이터를 금융 서비스, 제조업, 의료보건 등 분야에 융합할 예정이다.

NVIDIA 99달러 입문용 인공지능 컴퓨터 Jetson nano 발표

3월 19일, NVIDIA GTC 2019 개발자 기술 대회가 실리콘 벨리에서 개최됐다. NVIDIA는 99달러의 입문용 인공지능 컴퓨터 Jetson nano를 발표했다. 황런쑤(黄仁勋)는 Jetson Nano를 수백만의 스마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AI 컴퓨터라고 소개했다.

3.업계 핫이슈

스탠포드대학 “이런웨이벤(以人为本, 사람을 근본으로)” 인공지능 연구원 설립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3월 18일 “이런웨이벤(以人为本)” 인공지능 연구원(HAI)을 설립했다고 발표, 스탠포드대학 인공지능 과학자 리페이페이(李飞飞)와 철학자 존 에체먼디가 함께 원장에 취임, 인공지능 영역의 과학 협력을 추진하고 과학에 사람이 중심이 되게 하여 인공지능사회에 영향이 되는 연구를 강화한다. 소개에 의하면 HAI는 스탠포드 대학 7개 학원의 컴퓨터과학, 신경생물학, 경제학, 철학 등 여러 학문의 연구원을 포함한 약 200여 명의 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글의 전 최고 경영자인 에릭 슈미트 등 업계 전문가들이 고문을 맡았다.

홍콩과학기술대학(香港科技大学)과 혁신공장(创新工场), 전 텐센트(腾讯)AI Lab 주임 장통(张潼)박사가 주도하에 연합 실험실 건설

3월 20일, 홍콩과학기술대학과 혁신공장은 컴퓨터 감지와 인공지능 제어 연구실 설립 및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MOU에 따르면 실험실 개발의 연구 방향 계획에는 기계학습 기초이론과 기초 알고리즘 연구, 컴퓨터 감지와 인공지능 제어 연구가 포함되어 있다. 장통박사가 홍콩과학기술대학과 혁신공장 연합 실험실의 주임을 맡는다. 혁신공장은 당일 장통박사가 혁신공장에 합류 과학 연구 파트너를 겸임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2018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 모두 빠른 발전 추세

장강상학원(长江商学院)은 20일 베이징에서 <2018 중국 인공지능 지수>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인공지능의 학술 영역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산업 영역에서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들은 근 이십년 동안 전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고 2016년에는 400개가 넘어 절정에 달했다.

영국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생기는 인종차별 같은 도덕적 문제 엄중히 단속

해외 언론에 의하면 영국 데이터윤리 센터(CDEI)는 인종차별부서(RDU)와 협력하여 범죄 및 사법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내릴 수 있는 인종차별적 결정을 심사할 예정이다. CDEI는 모집, 지방정부와 금융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의 장점을 어떻게 최대한 사용할 것인지 연구하며 범죄 및 사법적 측면, 금융서비스, 구직과 지방정부 중 알고리즘 사용의 편견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다.

미국 공군 인공지능 비행전투기 계획 “Skyborg” 발표

미국공군은 최근 “Skyborg”라는 신형 인공지능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 지도자는 해당 계획을 통해 향후 몇 년 안에 무인주행 비행기와 전투기의 자율 주행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군은 2021 년 드론 비행과 2023 년의 전투기 비행 중, Skyborg 의 인공지능이 조종사를 도와 공중 전투와 복잡한 비행 조종을 통찰, 조종사 주위의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반응하며 신속하게 행동 요령을 추천한 것이라고 전했다.

4.투자 응자 현황

선전 인공지능 회사 “원텐리페이(云天励飞)” 수익 위안 B 라운드 응자 완성

3 월 22 일, 선전 인공지능 회사 원텐리페이에서 최근 수익 위안의 B 라운드 응자를 완성했다. CITIC BANK INTERNATIONAL(信银国际), BOC INTERNATIONAL(中银国际), 선전귀즈(深圳国资) 산하 펀드 등 여러 기관에서 투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해당 라운드 응자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과 시가는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 인사에 따르면 원텐리페이에서는 새로운 라운드 응자 혹은 혁신 부문의 상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3D 센서 부품 제공 업체 탕징양자(唐晶量子) A 라운드 응자 완성

최근, 국내 대형 GaAs 기반 VCSEL 에피 웨이퍼 제조업체 선두 기업 탕징양자 테크 유한회사에서 A 라운드 응자를 완성했다. Elevation China 캐피탈에서 해당 라운드 투자에 참여했으며 덩칭 캐피탈(鼎青资本), CASSTAR(中科创星), 성허텐메이(盛和天镁)에서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해당 응자를 기반으로 해당 회사는 2019 년 생산 능력을 확대하며 대량 상용을 실현할 계획이다. CASSTAR 는 탕징양자가 국내 대형 GaAs 의 선두 주자로서 인공지능 기반 3D 센서의 상승 추세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IDSS(观安信息) 1 억+위안의 응자 다시 유치, 빅 데이터 보안과 인공지능에 큰 힘 보태

최근, 네트워크 보안 업체 상하이 IDSS 주식 유한회사(上海观安信息技术股份有限公司)에서 B+라운드 응자를 완성했다고 발표, 1 억+위안의 자본을 유치했다. 해당 라운드 응자는 중이 혁신산업펀드(中移创新产业基金), 선진 제조 산업 투자펀드(先进制造产业投资基金)에서 함께 완성했다. IDSS 의 인공지능, 빅 데이터 보안 연구개발 전환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 IDSS 의 보안 제품과 보안 서비스의 전체적인 실력을 한 단계 향상시켜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 믿음직스럽고 효율적인 보안을 보장한다.

스마트 인터넷 수술 시스템 제공업체 “상하이핑싼(上海锋算)” 천만위안 상당의 Pre-A 라운드 응자 완성

3 월 19 일, 국내 최초 스마트 정형외과 수술 로봇 및 스마트 인터넷 수술 시스템 제공업체 “상하이핑싼”이 2019 년 초 천만위안 상당의 Pre-A 라운드 응자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라운드의 응자는 Highlight 캐피탈(弘晖资本), 마오롱 캐피탈(茂榕资本), 중관춘 협동 펀드(中关村协同基金)에서 함께 참여했다.

GS-Robot(高仙机器人) Grand Flight Investment(远翼资本)이 투자한 1 억 위안 B 라운드 응자 유치

3 월 19 일, GS-Robot 은 베이징(北京)에서 미디어 발표회를 개최, 1 억 위안의 B 라운드 응자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Grand Flight Investment 에서 첫 투자자로 나섰으며 Seven Seas 캐피탈(七海资本), BLUE RUN 벤처(蓝驰创投) 등 상위 라운드 투자자들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GS-Robot 측은 현재 회사의 시가는 1 억 달러를 넘었으며 해당 응자 이후 기술 연구개발 추가 투입 및 제품라인 구축과 동시에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올해 총 면적이 5000^m²를 상회하는 로봇 제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메이신연방(美信联邦)” BitRock Capital 에서 투자한 수천만 달러 C1 라운드응자 유치

3 월 21 일, 메이신연방은 수천만 달러의 C1 라운드 응자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BitRock Capital 에서 첫 투자자로 나섰으며 천산 캐피탈(千山资本), BAI(贝塔斯曼亚洲基金), KIP(韩国创投伙伴), Fellow 캐피탈(复朴资

本) 등의 구주주들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해당 라운드 용자는 플랫폼 건설보완, 재산관리 채널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전, 중, 후 서비스를 제공하며 팀과 서비스 반경을 확대하며 AI 등 선진기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AI 칩 회사“SPACE TOUCH(普林芯驰)” 수천만 위안 A 라운드 용자 유치

3 월 21 일, AI 칩 회사 “SPACE TOUCH”는 Volcanics 벤처(火山石资本)에서 투자한 수천만 위안의 A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 SPACE TOUCH 는 터치, 음성 인식 AI 칩 착안, 3C, 가전제품 등 스마트 단말기 제품 방산업체들에게 칩 셋과 알고리즘 전체의 소프트/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지치즈신(机器之心)”바이두 벤처(百度风投), 레노버 캐피탈(联想资本)에서 투자한 Pre-B 라운드 용자 완성

최근, 인공지능 수직 미디어 “지치즈신”은 Pre-B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 바이두 벤처에서 첫 투자자로 나섰으며 레노버 캐피탈에서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지치즈신 창업주 자오원펑(赵云峰)은 해당 자금을 데이터 제품의 개발과 보완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치즈신은 현재 인공지능 수직 미디어에서 종합 정보 및 산업 서비스 업체로의 전향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지치즈신”의 B 라운드 용자도 추진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 주도 비전 로봇 회사 “ForwardX(灵动科技)” 후판이정(湖畔里程)에서 투자한 B 라운드 용자 유치

3 월 21 일, 자기 주도 비전 로봇 회사 “ForwardX”에서 1 억 위안의 B 라운드용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후판이정이 첫 투자자로 나섰고 BOCOM International(交银国际), CHORD 캐피탈(九弦资本)이 함께 투자에 참여했으며 A 라운드 투자자 CDH Investment(鼎晖投资), EASTERN BELL 캐피탈(钟鼎资本)도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갔다. ForwardX 의 창업주 겸 CEO 인 치어우(齐欧)는 해당 용자를 물류와 소비 로봇의 양산 제조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 년에 설립 된 ForwardX 는 컴퓨터 비전 기반의 연구 개발 제품을 주로 2B 와 2C 영역에 적용하고 있다. 로봇이 “딥 러닝 브레인”을 통해 환경 감지, 자기 주도 이동 능력을 가지고 전통 제조업과 물류업에 힘을 보태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5.업계 관점

빌게이츠: AI 는 핵무기와 같아 우리는 AI 를 건강과 교육 개선에 이용해야 한다.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 빌게이츠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열린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연구토론회에서 “우리는 AI 를 건강과 교육 개선에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빌게이츠는 AI 기술이 핵무기와 핵에너지 같이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AI 의 쓰임새가 빛나가지 않도록 건강과 교육 개선에 사용, AI 의 출현을 대다수의 사람에게 혜택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방면에서 빌게이츠는 AI 가 학교와 기타장소에서 새롭게 응용되길 희망하고 교육과 학습의 적극성으로 옮겨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학생 중퇴율을 제어할 것이다. 하지만 빌게이츠는 오늘날 AI 시스템의 내부 작동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며 “현재의 딥러닝 시스템은 대부분이 불투명하고 이 점은 우리에게 불안을 안겨준다. 미래에 AI 의 성능이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AI 의 가해석성(post-hoc interpretable)이 향상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6.인사 변동

실리콘 벨리 과학자 자양칭(贾扬清) 알리바바 정식 합류

3 월 18 일, 원 Facebook 화교 과학자 자양칭이 알리바바에 정식 합류, 기술 부회장의 직책을 맡아 빅 데이터 컴퓨팅 플랫폼의 연구 개발 작업을 책임진다. 자양칭은 칭화대학교(清华大学) IT 자동화 전공의 학사,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알리바바에 합류하기 전, Facebook 에서 공학 감독을 역임하여 대규모 인공지능 플랫폼의 구조를 담당했다.

Airbnb 또 다시 AI 인재 발굴, Pinterest 수석 기술관 업무 부서에 입사

저번 주, Airbnb 는 Pinterest 수석 기술관 Vanja Josifovski 가 Airbnb 로 합류, 해당 회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발전한 업무 부서 Airbnb Homes 의 수석 기술관 직책을 맡는다고 전했다. Airbnb Homes 회장 Greg Greeley 는 Josifovski 의 영입을 통해 공학, 인공지능, 기계 학습과 데이터 과학을 통합하여 Airbnb Homes 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ICO News Letter by PLAYCOIN (2019.3.22)



1. 중국, 블록체인 특허 세계 최다 보유...한국은 3위(더비체인, 2019.3.17)

중국이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원한 블록체인 관련 특허 수는 1060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중국이 790 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762 건으로 2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161 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영국이 36 건으로 상위권 10위 안에 들었다.

한편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기업은 엔체인홀딩스(nChain Holdings)인 것으로 드러났다. 엔체인홀딩스는 203 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IBM 119 건, 마스터카드 111 건이 각각 2, 3위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엔체인홀딩스는 자신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카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수장인 블록체인 기업이다. 본사 소재지는 영국 런던이지만 캐나다, 호주, 인도 등에서 특허를 출원해 중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낸 나라로 집계됐다.

2. 中 선전시, 중국 내 첫 지하철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영수증 발행(토큰포스트, 2019.3.19)

중국 선전시가 중국 내 첫 블록체인 기반 지하철 전자 영수증 발행에 나섰다.

19 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첫 경제 특구인 선전시가 지하철 내 블록체인을 도입한 이용요금 영수증 발행에 나섬을 밝혔다.

해당 프로젝트는 선전시 국세청과 1억명의 유저를 가진 SNS 플랫폼 위챗의 개발사 텐센트와 합작한 프로젝트이다.

발표에 따르면,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은 하차시 선전 메트로 승객 코드를 위챗 결제 바우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형식이다.

15 일(현지시간), 선전시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영수증을 100만개 이상 발행했음을 밝혔다.

특히 중국의 방대한 인구를 생각했을 경우, 해당 시스템은 엄청난 규모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은 조세, 공항 버스, 다양한 교통시설 등 모든 분야에 무궁무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현대사회의 필수 요소인 교통 분야 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도입은 해당 기술 및 화폐의 필연적인 사회 도입을 촉진하는 좋은 사례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런 도입의 움직임이 서서히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월, 아르헨티나 교통부는 37개 도시 내에서 지원되는 버스카드 'SUBE'를 비트코인으로 충전할 수 있음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선전시는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 세금 결제서를 발행 계획을 밝히기도 하는 등 중국 내 첫 번째 경제 특구로서의 선도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3. 중국 암호화폐 시장 부활할까, 비트코인으로 위안화 자금이 유입중(코인투데이, 2019.3.19)

코인리브(Coinlib)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 들어가던 자본 유입을 감시하던 모니터링 결과, 중국 위안화가 가장 많이 사용된 통화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 시간 동안 비트코인에 유입된 위안화는 1 억 6 천 5 백만달러를 상회했고 그 다음 알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이 같은 기간 동안 7 천 5 백만 달러를 약간 밑돌았다.

이런 수치는 예상대로 미국 달러에 비해 법정화폐 진입 자산에서 2 위를 차지했고 가장 큰 유입은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서 나왔다.

특히 중국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경제 중 거대 채굴회사가 철수한 시점에서 6 개월만에 나온 수치로 비트메인은 축소 및 비용 절감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업계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비트메인의 주요 경쟁사인 케이넨 크리에이티브(Canaan Creative)가 이달 초 자금 조달을 중단했는데, 이 자금의 가치가 수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만약 비트메인이 다시 살아난다면 한때 최대 투자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조짐으로 중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 암호화폐 전용 거래소인 FatBTC 는 지난 하루 동안 50% 이상 볼륨을 증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2017 년부터 중국 인민들의 거래 옵션을 금지하기 위한 결정을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만이 합법적으로 남아있다.

한편 이번달 TheNextWeb 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블록체인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거의 800 개의 상을 수상했다.

4.주간이슈-中 최대 정치 축제 '양회'서 블록체인 집중 논의...안건 60% 급증(전자신문, 2019.3.20)

지난 15 일 막을 내린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블록체인 관련 논의가 집중 이뤄졌다.

중국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비스제에 따르면 지난 양회 기간 제출된 블록체인 관련 안건은 총 34 건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해보다 62% 늘었다.

이 중 블록체인 기술 육성 방안이 14 건으로 가장 많았다. 블록체인 규제 및 정책 관련 안건도 5 건 상정됐다. 특히 중국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에 숨통을 틔어 줘야 한다는 건의가 다수 등장하며 관심을 모았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71) (2019.3.27)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미디어&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확장하는 디자인



사진:KFC 아침 세트메뉴에 있는 또우장

또우장(豆浆:두유)은 중국인이 즐겨 마시는 음료이다. 중국인 아침 식사 음료에는 또우장은 필수이다. 심지어는 맥도날드, KFC 등 중국에 위치한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도 아침 식단에 또우장이 있다.

필자는 춘절(설날) 때, 중국 지인 집에 방문 한 적이 있었다. 지인은 딱딱하게 마른 콩을 또우장 만드는 기계에 물과 함께 넣고 약 10 분 정도 작동시키니 우윳빛의 또우장이 되어 나왔다.

10 여분 만에 또우장을 만들어 주는 이 기계가 신기하여 필자는 구입해서 집에서 직접 만들어 마셨다. 몇 번을 만들어 마시면서 이 기계를 세척하는 일이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다.

기계는 제법 크고 무거웠고, 이런 이유로 사용빈도가 줄어들면서 어느 새부턴가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또우장이 마시고 싶으면 그때마다 매장에서 한 팩 구입을 한다.



사진:한 회사의 커피머신의 사진

커피머신 중 요즘은 캡슐이 나와 이 캡슐을 기계에 집어넣으면 바로 커피를 만들어 준다. 이런 캡슐 커피머신이 유행하고 있다. 사용이 편리하며 관리도 쉽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커피 캡슐이 있어 여러 맛의 커피를 손쉽게 즐길 수 있다. 이러한 장점덕분에 시장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유사상품이 나왔다.



커피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또우장 또한 캡슐로 만들 수 있다. 또우장 캡슐을 기계에 장착하면 1분안에 또우장이 나온다.



외국에는 또우장을 마시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캡슐형 커피머신을 만드는 외국 회사는 또우장 캡슐 형식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캡슐형 커피머신에서 확대하여 중국 기업에서는 중국 문화에 맞춰 또우장 캡슐과 차(茶) 캡슐을 만든다. 디자인은 확장성이 있다. 더 사용 편하고 품위를 주는 쪽으로 끊임없이 확장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문화가 있다. 문화와 잘 어우러지면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며 시장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다.

사진:또우장을 시킬 수 있는 한 밀크티샵

자사의 기계는 어떤 문화와 매칭이 되는지? 사장님은 잘 생각하시길 바란다.

주간 중국 VC 투자 요약**IT 오렌지 주보: 3/18~3/24 까지 있었던 81 개 국내 투자/합병건**

(출처:IT 오렌지주보(IT 桔子), 2019.3.25)

IT 오렌지의 지난 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주(3.18~3.24)는 총 81건의 투자/합병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주에 발생한 82건의 투자용자 건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용자 열기는 지난 주와 동일하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 의료건강 분야는 투자 금융 건이 제일 많이 발생한 업종으로 15%를 차지했으며, 12건의 투자/합병이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기업서비스는 11건의 투자로 14% 차지하면서 3위를 하였다. 하드웨어 업계는 2주전에서 1위에서 지난주 4위가 되어 10건의 투자용자 인수 합병이 발생했는데 이는 12%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로 보면, 초반에 발생한 사건의 수가 평소와 같이 큰 편이다. 이 중 A 라운드 용자가 39%를 차지하면서 32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B 라운드 용자가 16%를 차지하면서 13건으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전략투자는 14%를 차지하면서 11건으로, 전략투자 사건 건수가 최근 한 달여 사이에 선두를 달리면서 새로운 신종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알리바바(阿里巴巴), 진르투우티아오(今日头条), 바이두(百度)가 각각 인테리어, 게임, 매체영역에 투자를 했다.

텐센트는 1 건의 투자에 참여했다.

"큰손이 손을 내밀면 업계는 움직인다"는 알리바바의 새로운 판매 배치가 끝나면, 업계가 재조정예 박차를 가한다.

3 월 14 일 알리바바는 인테리어회사 '장뒤뒤(匠多多)' 의 주주가 되어 20%의 지배율을 기록했고, 실제 회사의 지배인은 타오바오중국지주유한공사(淘宝中国控股有限公司)였다. 장뒤뒤의 산하 브랜드 덩바오무(灯保姆)는 조명설치, 세정관리의 종합성을 띄는 브랜드로 각종 호텔, 아파트, 가정용 조명기구의 설치, 세정, 케어 및 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 상거래+인테리어 상품의 가장 큰 난관은 오프라인 서비스 업체여서 설치 판매 후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협력하는 브랜드의 매니저가 있어도,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동일한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으로 효과적인 감독을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 오프라인의 거물급에게 한 몫을 나눠주기란 쉽지 않다.

알리바바는 오프라인 인테리어 애프터서비스 분야를 배치하거나, 인테리어 업계의 온라인+오프라인 폐쇄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전자 상거래의 플랫폼의 접점을 강화하고, 인테리어 업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두는 1 건의 투자에 참여했다.

3 월 21 일, 인공지능 수직 미디어 지치즈신(机器之心)이 Pre-B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고, 이번 라운드에서 Baidu Ventures(百度风投)가 첫 투자에 나섰고, Lenovo Capital (联想创投)가 함께 투자에 나섰다.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진르투우티아오는 1 건의 투자에 참여했다.

3 월 18 일, 바이트댄스(字节跳动 Bytedance) 전체 자금을 구입한 모바일 게임 개발상 상하이모쿤슈마(上海墨腾数码), 게임의 메인 컨트롤하는 능력을 보강하여, 산업 사슬의 상위로 확대하고, 서비스게임이 부각되는 대전략을 구사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투자/합병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 서비스 업계]

3 월 20 일, IT 사무기기 임대업체인 샤오송 U 주(小熊 U 租)가 1.5 억 위안의 Pre-B 라운드 용자를 완료하고, 구주주인 Fortune Capital(达晨创投)와 중저우테렌허(中洲铁城联合)가 첫 투자에 나섰다. 징둥(京东)은 3 개월도 안되서 그룹급 업무+투자전략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3 월 22 일, 모바일 판매 관리 시스템의 연구 개발 사업자 자투이커지(加推科技)가 B 라운드 용자로, 첸하이모신탁(前海母基金), IDG 즈번투우즈(资本投资)를 얻었다. 용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전자 상거래 업계]

3 월 19 일, 국내 선두의 소셜 판매 솔루션 서비스 사업자인 후짚커지(虎贲科技)는 3,000 만 달러의 B 라운드 파이낸싱을 완성했고, 세쿼이어 캐피탈 차이나(Sequoia Capital China, 红杉资本中国基金)가 첫 투자에 참여하였고, 소스코드캐피탈(源码资本, Source Code Capital)과 진사장펀드(金沙江创投)등 창업 투자 기구는 계속해서 3,000 만 달러 B 라운드 용자에 함께 투자에 참여했다.

[금융 업계]

3 월 21 일 재산관리플랫폼 메이신렌방(美信联邦)은 C1 의 몇 천만 달러의 용자를 얻었다고 전했다. BitRock Capital 이 첫 투자에 나섰고, 千山资本, 贝塔斯曼亚洲基金(BAI:Bertelsmann AsiaInvestments), Korea Investment Partners, 푸피아오즈번(复朴资本) 등 구주주들이 투자에 함께 참여했다.

주간 투자현장 일람표

주간 투자&합병 일람표는 상기 오렌지주보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일본,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중국에서 IT 소개, JETRO 상해에서 강연회

(BCN, 2019.3.22)



사진: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 이또아세이준교수

3월20일, 중국 상해시에서 JETRO(일본 무역 진흥기구)아시아 경제 연구소와 JETRO 상해 사무소는 '불투명한 중국경제가 향하는 곳'을 테마로 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경제와 IT전문가가 중국의 현황을 해설하고, 중국의 IT사회 구조 등을 소개했다. (상해지국 사이또슈헤이 齋藤秀平)

동경대학사회과학연구소 '이또아세이 준'교수는 '디지털차이나『제4차산업혁명』의 중국적 전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중국의 IT사회 실현을 지지하는 구조로서,

(1)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와 같은 IT 대기업이 모바일 결제 등 인프라를 만든다. (2)투자와 액셀레이터의 존재 등으로 벤처 생태계가 형성되는 환경이 있다. (3)정부가 지방에서 자유롭게 실험을 하고 최신기술을 사회에 도입한다. 교수는 앞서 말한 3가지를 얘기하며 'IT의 사회 구현의 면에서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 라고 말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에서의 중국 IT대기업의 투자상황과 사례를 선보이고, 중국형 IT가 도상국에 확대되고 있는 것을 예시하며, '신흥국에서의 디지털화를 구현화한 중국의 솔루션은 다른 도상국에 전개하기 쉽다'고 해설하였고,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권구상 '일대일로'를 인용해, 디지털 영역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종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인터넷 유저수는 한때 급속히 늘었지만, 최근에는 그다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중국 인터넷 관련기업은, 기존 유저를 어떻게 놓치지 않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에 대해서는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의 '타나카 오사무' 수석 선임 조사 연구원이 등단하여 건국 70주년을 맞는 2019년 중국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할 중요한 테마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감세를 실시함으로써 중국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를 촉구하고 있는 것 등을 터뜨렸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2. 사랑을 하는데 '연애'수업이 필요한가? 중국 대학에서 개설 붐물

(동방신보, 2019.3.23)



사진: 미혼 자녀를 위해 공원에서 구혼활동을 하는 부모들 (2017년 10월 3일 촬영, 자료사진)

북경사범대학(北京師範大學:Beijing Normal University)학생심리 컨설팅 서비스 센터의 씨아추이추이(夏翠翠:Xia Cuicui)부교수는, "연애과는, 실제로 심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이해를 깊게 하고, 자신의 성장 과정과 올바른 혼인 연애관을 정리함으로써 연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장래에 혼인과 가정생활의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심리학을 가르치는 방법은, 전통적 과목과는 다르다. 교수는 단지 직접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의 상호교류 속에서 학생을 결론으로 이끌어 내고, 올바른 관념과 이념을 전수하는 것이다. 특히, 연애과정에는 기존의 교재나 커리큘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론과 현실을 연결시킬지가 교사에게 있어서 큰 과제다."라고 말하고 있다. 보호자나 학교가 일방적으로 금지할 경우, 아이의 연애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래에 연애를 할 시기가 오더라도, 심리적인 장벽이 원인이 되어 연애가 잘 안될지도 모른다. '연애를 할 수 있을 때 못하게 하더니, 이제와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요구하는건 뭐예요'라고, 결혼 적령기를 넘긴 자녀로부터 부모가 한마디 듣게 된다.

반면, '사랑을 하는 것은 인생경험으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생에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얻을 때도 잃을 때도 있다. 어느쪽도 정상적인 상태이다. 신경질내지 말고 손을 내려 놓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면 된다. 가르쳐야 하는 과목은 '성행위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이며, 과학과 윤리의 시점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자녀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보호자도 있었다.

최근, 중국에 많은 대학에서 '연애과'가 개설되고 있다. 내용은 심리학 외에 연애 기교, 연애 경제학, 혼인과 가정 등에 이른다.

화둥사범대학(華東師範大學:East China Normal University)에서는 2013년부터 '애정'을 교과 과정에 넣고 있다. '혼인과 애정'으로 이름을 붙여 선택 과목으로 개설을 했더니, 84명 모집에 약 500명이 신청을 했다.

정저우 사범 학원(鄭州師範學院:Zhengzhou Normal University)은 2015년 9월에 '애정심리학'을 선택 과목으로 개설, 개설 당일에 희망자가 쇄도해 만원이 되었다. 서남정법대학(西南政法大學: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의 연애 선택 과목에서는, 첫 만남에서의 대화 방법, 고백법과 러브레터 쓰는 법 등을 가르친다고 한다.

3.5G 대응에 EU 협조, 중국에 대한 신전략을 논의(산케이신문, 2019.3.23)

【베를린 = 미야시따히데오훈 下日出男】유럽연합(EU)의 회원국은 22 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제 5 세대(5G) 이동 통신 시스템 정비에서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EU 의 협조적인 대책을 정리하도록 EU 의 행정 집행 기관인 유럽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국 통신 기기 대기업인 화웨이 기술을 염두에 둔 대응이다.

화웨이를 둘러싸고 미국이 기밀정보 누출 우려로 5G 정비를 이 회사 제품의 배제를 유럽에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국간에 온도차가 있는데다 대응도 각국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EU 공통의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G 대응은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된 대중 신전략 논의의 일환이다. 정상회담 성명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또 역내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흔드는 중국의 국유기업과 국가보조에 대한 대처도 연내에 정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중국에 대해서는 최근에 유럽에서도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2 일 유럽위원회는 중국을 파트너이자 동시에 '경쟁상대'로 규정하고, 10 개 항목의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전략 견해'를 공표했다. 정상 회담이 결정한 내용도 이에 따른 노력이다.

22 일, EU 의 투스크 대통령은 중국과 4 월 9 일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국가 보조 등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설득할 수 있다며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윙켈유럽위원장은 '중국은 라이벌인 이 상황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전했다.

4.이탈리아, 일대일로 참가 중국의 항구로 전략하나?(뉴스위크, 2019.3.26)



사진: 중국이 투자하게 된 이탈리아의 제노바항은 지중해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의 하나_SurkovDimitri/iStock.

이탈리아는 주요 7 개국(G7)의 멤버로 처음 중국의 거대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해 정식 지지를 표명했다. 이것이 EU(유럽연합)과 미국의 분노를 사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3 월 21 일부터 3 일간의 일정으로, 유로권 3 위 경제 대국으로 2018 년 말부터 경기 후퇴에 시달리는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에 관한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서명국은 124 개국에 달했다.

2013 년에 제창된 일대일로는 지역의 협력과 개발, 연결을 촉진하는 인프라 투자 건설 프로젝트에 중점을 둔 대륙 횡단 프로젝트이다. 가맹국은 무역과 에너지, 교통 등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이 주어지며, 중국은 이를 쌍방에 발전을 가져다주는 윈-윈 관계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서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가, 일대일로에 참가하면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등 회의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사실 일대일로는 현재 세계인구의 3 분의 2 를 극복하고 이 구상에 대한 그간의 투자총액은 1 조 달러를 넘었다고 보인다.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이라는 매력

중국에 대한 시각에서 이탈리아 정부 내 의견은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경기 후퇴 속에서 세계 2 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 있다. 전(前)주 중국 이탈리아 대사인 '알베르트 브라다니니'씨는, 이번의 이탈리아 결단의 배경에는 EU 가 일대일로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영거주춤한 채 대중무역적자(이탈리아는 EU 의 대중무역적자의 8 분의 1 을 차지한다) 삭감에 대한 계획조차도 세우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무역(특히 수출)확대를 통해 '메이드 인 이태리'를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탈리아제 상품(특히 고급브랜드품과 식료품)은, 중국의 중간소득층과 부유층에 있어서 매력적일 것이다.

중국도 이탈리아 기업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만등 이탈리아의 주요한 인프라 자산이다.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한층 더 나아가 유럽 각지에 접근이 가능한 일대일로의 교통과 무역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수입품 중 해상수송에 의한 것은 2%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도 많은 성장이 예상된다.

아시아 인프라개발은행에서 투자도 기대

이미 제노바 항만당국과 중국교통건설(중국의 운수회사)의 제휴를 이탈리아 정부가 승인한 바 있으며, 항구도시 트리에스테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과의 합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가 이뤄진다면 중국과 일대일로 구상은 유럽대륙에 보다 직접적인 수송루트와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철도 및 기타 교통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때문에 이상적인 허브를 손에 얻게 된다.

이탈리아는, 중국 국내 항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으로써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서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일대일로에 있어서 자국의 역할과 AIIB 를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다.

시주석의 방문지에 항만도시 팔레르모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이 유럽의 수송 거점으로서 동향을 선택지에 넣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018 년 9 월에는 북아프리카의 알제리가 일대일로 구상에 참가하고 있으며, 팔레르모와의 제휴가 실현되면 아프리카에 새로운 무역 루트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반응은 좋게 얘기하자면 복잡하다. 독일과 프랑스는 앞서서 이탈리아를 비판하고 투명성 결여와 일대일로에 있어서 중국기업이 우선되는 불공평의 문제, 유럽기업의 국내프로젝트 참가를 제한하는 중국의 보호주의 등의 우려를 늘어놓고 있다. 국제사회는 비판적이고 EU 는 특히 이탈리아 결정이 EU 의 대중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의 대 '일대일로' 정책에 관해서 이미 2017 년의 시점에서 단결이 무너져 있던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이다. 같은 해,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폴란드와 체코를 비롯한 중동유럽이 일대일로에 참가했고 그리스,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도 그 뒤를 이었다.

미국도 이탈리아의 결정은 일대일로에 관한 G7 의 입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일대일로는 '채무의 덩어리' 외교루트이며, 중국은 위세 떨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중간의 대립격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은 무역전쟁의 한복판에 있다. 미국이 중국의 하이테크기업, 화웨이의 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스파이 죄를 소추한 것은 미국이 전략산업에 중국투자자와 매수를 경계하고 있는 증거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동맹국의 보조를 맞추지 못해 이탈리아 통신대기업 텔레콤이탈리아와 영국 등은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계속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예상되는 '멋대로의 행동'

시진핑에 의한 이탈리아 방문의 영향은, 4 월 9 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중국정상회담에서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를 쌓고 있는 EU 지도부는 중국을 「시스템 라이벌」이라고 하는 공식 전략문서를 발표했다. 이런 중에 EU는 일대일로에서는, 중국에 대해 인프라와 투자 프로젝트의 분야에 있어서 설명책임과 투명성의 향상을 요구하며, EU가 하나가 되어 압력을 가해가도록 가맹국에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3 월 18 일에는 모든 가맹국에 대해서 중국기업의 공적조달 프로젝트에 입찰을 금하도록 권고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탈리아가 G7의 멤버라는 것은, 중국지도부에 있어서 동국이 일대일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에도 커다란 매력이다.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참가에 의하여 앞으로 EU의 대 중국의 접근이 흩어질 것이 예상되지만, 중국 또한 지금까지처럼 EU 가맹국을 개별적으로 노리고 수중에 넣음으로서 EU를 효과적으로 분열시켜 왔다.

그러므로 이탈리아에 의한 이번 결단은,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 4년 전에는, 이탈리아만이 아닌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의 희망과 반해 AIIB에 참가했다. 그것을 생각하면, 유럽제국중에서, 국익을 우선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나라는 이탈리아가 처음은 아니며, 최후가 되지 않을 것이다.

Winnie King, Teaching Fellow East Asian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University of Bristol

위니 킹 (브리스톨대학 동아시아&국제정치경제학 티칭페로)

KIC 중국 NEWS

1.KIC 중국, 칭화대학교 김기환 부교수님과의 인터뷰 (2019.3.21)



2019년 3월 21일, KIC 중국은 칭화대학교 양자컴퓨터 분야 김기환 부교수를 만나 양자컴퓨터와 해외 우수 인재 정부 초청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KIC 중국이 계획하는 양자컴퓨터 한중 네트워크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통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의 양자컴퓨터 선도 분야라는 질문에서 김기환 부교수는 "중국은 풍부한 재정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사실 양자통신 분야는 미국보다 앞서는 기술을 보이고 있다."라고 답했다.

둘째, 김기환 부교수는 중국 과학기술대학 양자컴퓨터&통신 권위자 판지엔웨이(潘建伟) 외 2인이 주도하는 현재 양자컴퓨터&통신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중국 양자통신 분야의 정보와 기술을 한국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셋째, 김기환 부교수가 칭화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양자컴퓨터 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양자컴퓨터 구현 기술은 초전도체, 이온트랩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광자, 고체 그리고 반도체가 있다. 그 중 현재 김기환 부교수가 칭화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기술은 이온트랩이다. 이온트랩을 이용하여 양자 우위를 달성하는 것을 앞으로 5년 계획으로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기환 부교수는 "양자 우위를 달성을 목표로 세계의 많은 대학과 연구진이 노력 중인 상황이다. 양자 우위를 통해 인류가 새로운 도약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양자우위가 모든 것을 말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따라오는 연구이기 때문에 아직 누구도 기술을 선도하거나 선점할지는 모른다고 했다.

인터뷰를 통해 김기환 부교수의 연구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을 파악하여 우수 연구자 정부 초청 프로그램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초청 프로그램 내용을 전달하였다.

2.KIC 중국, “Cirrus Program-제 9 기 국제 유학생 인턴 지원 간담회” 방문

(2019.3.23)

2019 년 3 월 23 일,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은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对外经贸大学)에서 개최한 “Cirrus Program - 제 9 기 국제 유학생 인턴 지원 간담회”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중관촌일대일로산업촉진회(中关村一带一路产业促进会)와 대외경제무역대학이 주관하고 중국인민대학(北京人民大学), 북경이공대학(北京理工大学), 북경외국어대학(北京外国语大学), 북경항공대학(北京航空航天大学), 북경공업대학(北京工业大学) 등 대학교들과 연합하여 800 여명의 각 나라 유학생, 언론 매체, 경무대 유학원 교수, 하이디엔취(海淀区) 인민정부 위원, 중관촌 과학기술원 하이디엔원(海淀园) 관리위원회 위원, 중관촌 도시가스협회 위원회, 중관촌 하이테크 기업협회(中关村高新技术企业协会)가 참석하였다.



중관촌일대일로사업촉진회 (영문 : Zhongguancun the Belt and Road Industrial Promotion Association, 줄여서 ZBRA, 이하 촉진회)는 국가에서 “일대일로(一带一路)”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협력리더팀 (建设协调领导小组) 사무실, 국가발전 개혁위원회, 과기부, 외교부 등 기관의 지원,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관리위원회 허가를 받은 북경시 민정구(民政局)에 법적 등록을 한 법인단체이다. 이번 행사에서 KIC 와 일대일로의 핵심 능력과 자원을 이용하여 한중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성, 인재교류, 시장활동, 기술교류, 정책분석, 소싱연결, 글로벌협력 등 방면 상호 협력 및 발전 추진사업에 협력을 진행할 MOU 를 체결하였다.